

화학산업 대표주식 상승률 낮다!

1위 S-Oil 24.57%에 2위 SK 6.67% 상승 ... 평균 30%에 미달

업종별 대표주가 2005년 주가지수 저점 이후 시장수익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최고가 시대 개막의 1등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, 업종별 대표주인 시가총액 1위 종목은 2005년 종합주가지수가 저점(911.30)을 기록한 4월29일 이후 평균 33.21% 상승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31.70% 보다 1.51%p 높았다.

아울러 업종별 주식가격 순위 1위 종목도 평균 52.74% 상승해 시장평균을 훨씬 상회했다.

업종별 시가총액 2위 종목은 평균 28.91% 올라 시장수익률을 2.77%p 하회했으나 주가 기준 업종 2위 종목들은 평균 59.45% 올라 1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6.71%p 상회했다.

시가총액 1위 종목 가운데 쌍용양회(68.70%), 유한양행(59.91%), 삼성테크윈(59.18%), 현대자동차(51.02%), 두산중공업(49.62%) 수준으로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.

주가 기준 1위 종목은 동서산업(472.77%), 세방기업(94.66%), 한미약품(66.90%), 삼성화재(54.19%), 대림산업(40.97%) 순으로 많이 올랐다.

의약품 분야는 시가총액 1위 유한양행의 주가가 59.91%, 2위 한미약품이 66.90% 상승했다.

반면, 화학 분야는 1위 S-Oil의 추가가 24.57% 올라 평균 상승률 33.21%에 미치지 못했고, 2위 SK도 6.67% 상승하는데 그쳐 평균 28.91%에 크게 뒤처졌다.

<화학저널 2005/09/27>